



구미프비시합자회사 가라쓰지점 본관



구다카토리저택(국가중요문화재)

탕광경영자인 다카토리고래요시에 의해 세워진 건물입니다. 동쪽의 오히로마동은 1905년, 서쪽의 교시쓰동은 1918년에 세워졌습니다. 오히로마동에는 노무대 등 뛰어난 장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오오시마저택

가라쓰은행장이었던 오오시마의 저택입니다. 1893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300m정도 서쪽에 세워져 있었지만 2017년에 현재 위치로 옮겨 세워졌습니다.



구가라쓰은행본점<다쓰노킨코기념관>
(현중요문화재)

가라쓰의 근대화를 앞당긴 가라쓰은행은 1912년에 본점으로 세워진 건물입니다. 건물설계는 가라쓰 출신으로 일본 최초의 서양건축가 한명인 다쓰노킨고가 감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가현중요문화재

구미프비시합자회사 가라쓰지점 본관



【명칭】구미프비시합자회사 가라쓰지점 본관
(가라쓰시역사민속자료관)

【소재지】사가현가라쓰시카이간도오리7181번지

【구조】목조2층건물, 팔작지붕구조

【규모】면적 : 1층 약428㎡, 2층 약413㎡

【건축년】명치41년(1908)

【설계】미프비시마루노우치건축소

【시공】코베미프비시건축사무소

구미프비시합자회사 가라쓰지점 본관은 1908년에 가라쓰남부를 중심으로 퍼진 가라쓰탄전의 석탄을 채굴했던 미프비시가 석탄 판매를 위해 사무소로 건설한 건물입니다. 건물의 디자인은 서양식 목조2층 건물이지만 지붕은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디자인으로, 매우 특징적인 디자인입니다.

이 건물은 가라쓰서항에 인접한 매립지에 건설되어, 건물뿐만 아니라, 당시의 호안(독 보호시설)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가라쓰서항은 석탄의 무역항으로 번영하고 있어서, 베란다에서 석탄운반선이 왕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미프비시마루노우치 건축사무소(소장:야스오카카츠야·고문:소네다츠조)의해 디자인 되었습니다. 소네다츠조는 가라쓰출신의 건축가로, 그와 같은 가라쓰출신인 다쓰노킨고와 함께 일본 최초의 서양건축가 한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프비시가 가라쓰탄전에서 철수한 후, 건물은 해상보안청 등이 사용하고 있다가 1972년에 가라쓰시 소유가 되었습니다. 1979년에 복원공사를 한 후, 1980년에 사가현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라쓰역사민속자료관으로 사용되어오다가 현재는 휴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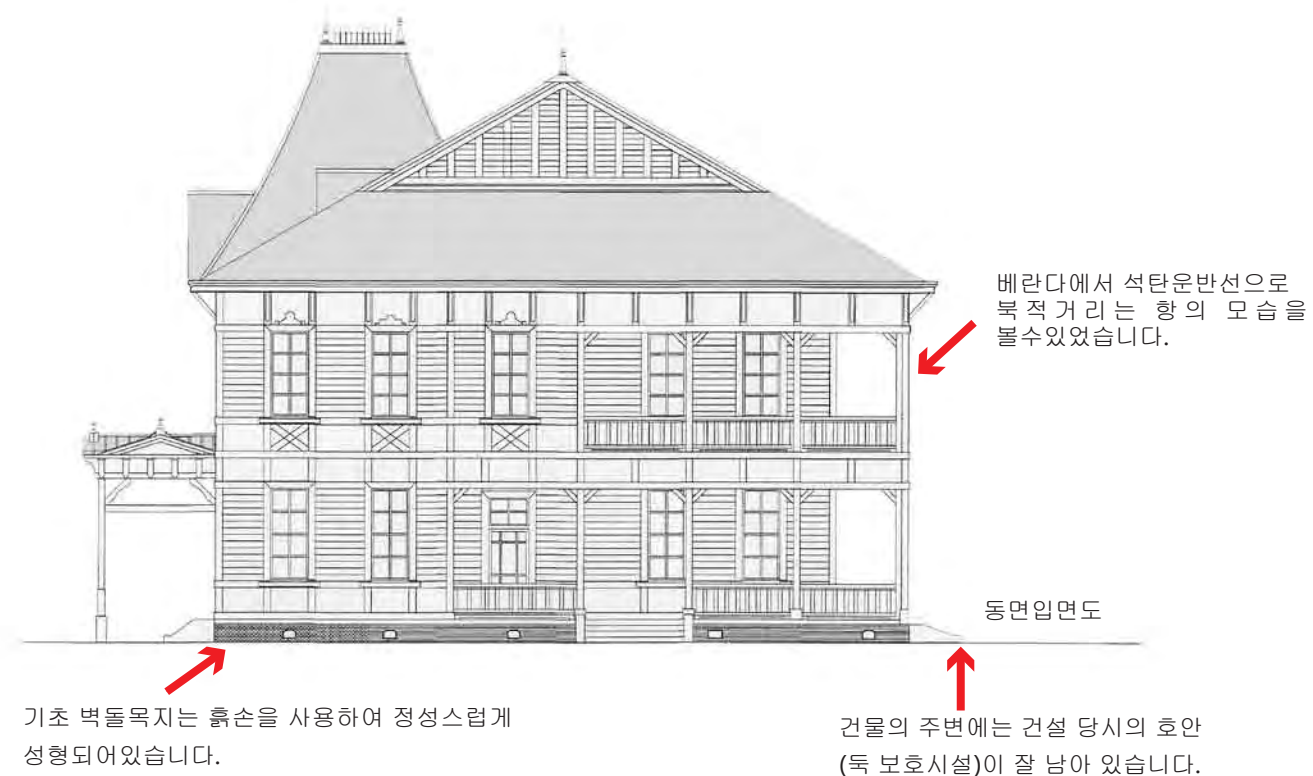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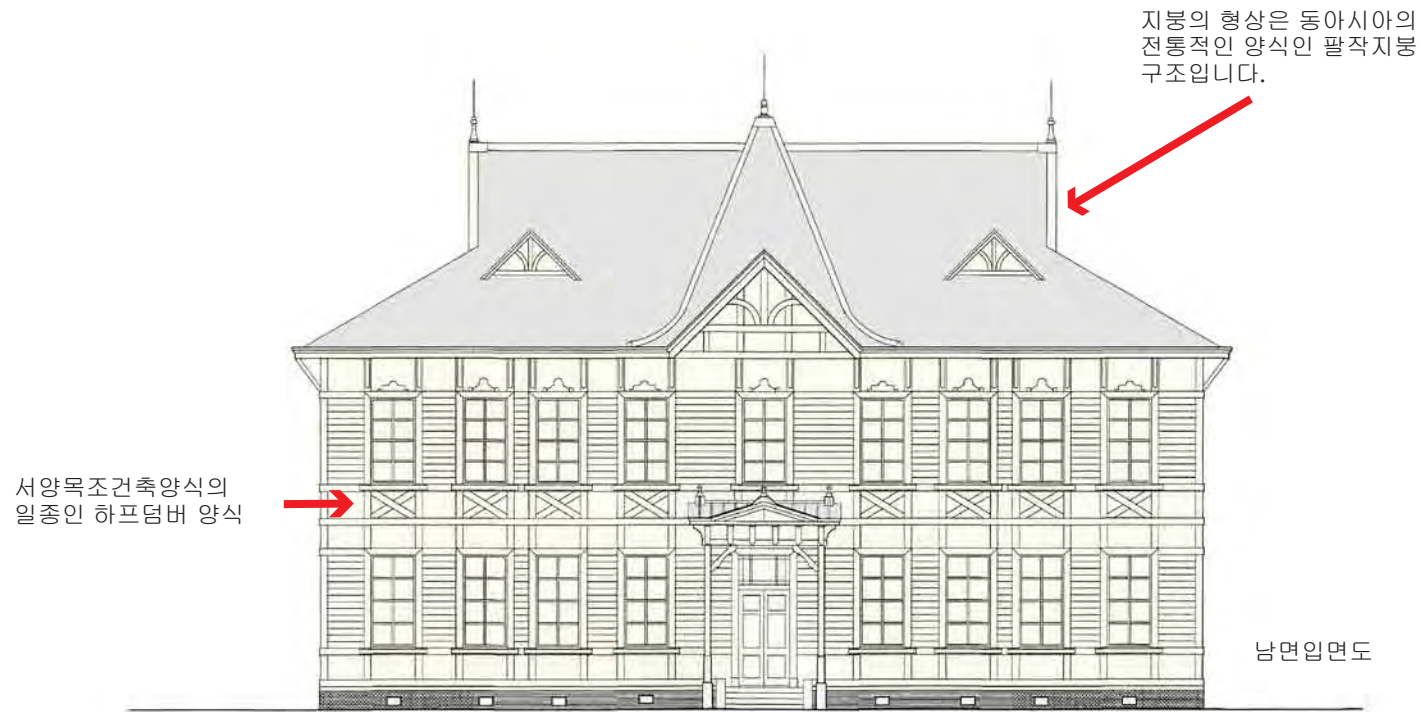
1910년대의 서가라쓰항

【국립국회도서관 웹사이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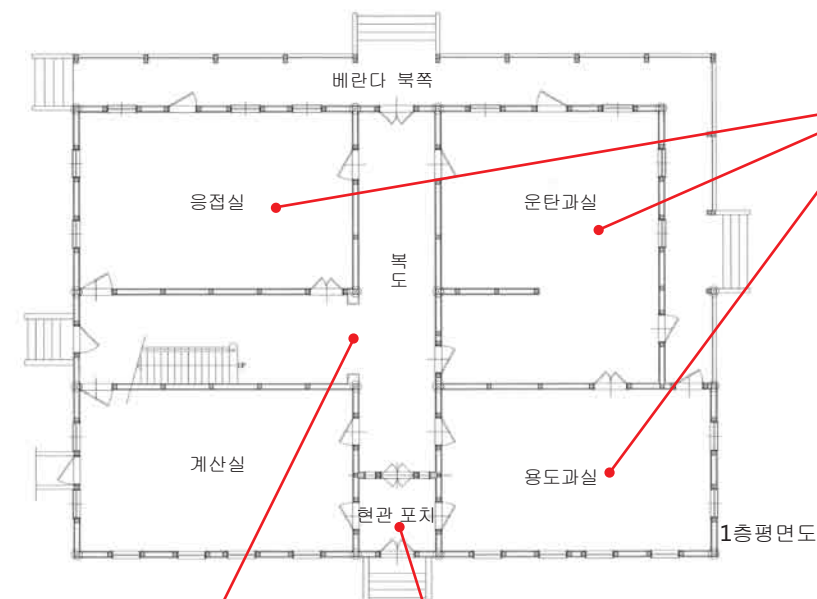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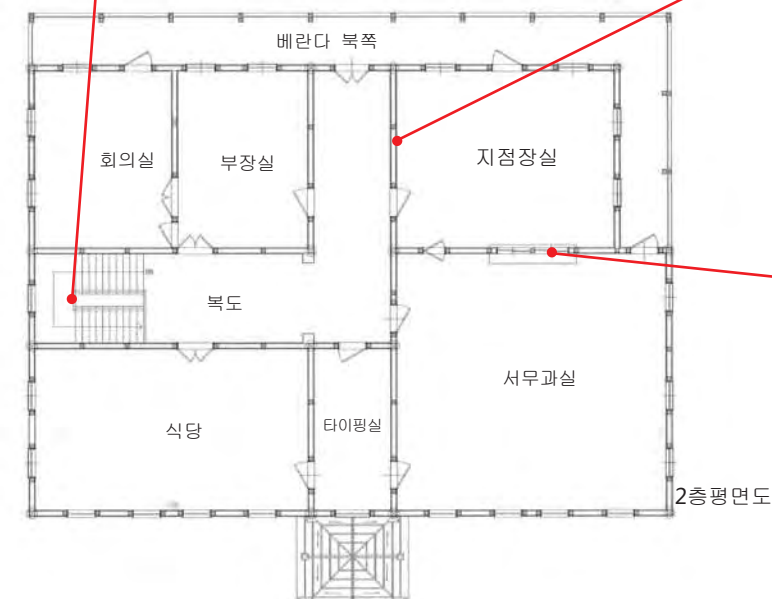


1930년대의 미프비시합자회사 가라쓰지점
(미프비시가라쓰광업소 사진첩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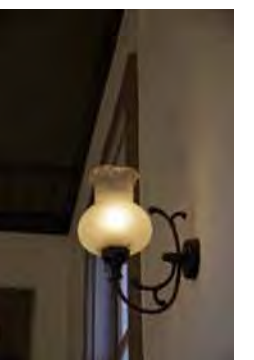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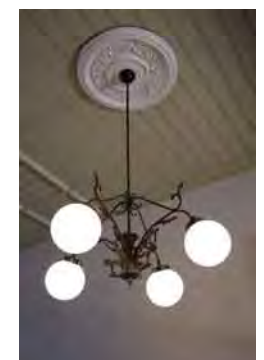
외 관



내 부



현관과 1층의 복도는 테라조(인조석) 마무리입니다.



조명디자인은 아르누보양식입니다.